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7호 【루게 제24530호】 주제 103 (2014)년 4월 27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는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



건설에서 돌격대,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자면 인민군대 정치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기관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군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특히 당정치사업의 화력을 싸움준비완성에 지향시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제질화함으로써 전군에 백두산 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근분담보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당군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반미대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치며 강성국가

중양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 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 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 지도를 받게 된 일당백포병들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장거리포병구분대의 지휘관들과 포병들이 불의에 기동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먼거리를 행군하여 낯선 지대



에서 포사격을 진행하지만 명중포탄을 날릴 자신만만한 배심에 넘쳐 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포사격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주체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

었다.

뿜어지고 포탄들이 번개처럼 하늘을 헤가르며 날아갔다.

정확하고 무자비한 타격으로 하여 목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삼시에 포연자욱한 불마당으로 변하는 모습

이 지휘소의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탄들이 목표를 타격할 때마다 명중이라고, 정말 잘 맞는다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포병들은 서로서로 얼싸안고 멸적의 불도가니속에 잠긴 적들이 아우성치는 물결을 통쾌하게 그려보며 《만세!》

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병들의 사기충천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장하다고, 서남해상화력타격전투에 참가하였던 구분대가 역시 다르다고, 포병들이 포를 잘 쏘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훈련을 통하여 일당백포병들은 이제 당장이라도 명령이 내리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적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조선인민군 포병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실전능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포병들이 싸움의 날을 생각하며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해왔기에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명중포성을 올릴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4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 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 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포사격훈련이 잘되었다고,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병들이 건군절을 경축하는 축포를 쏘아올리었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맞고보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고수하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철옹성같이 사수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수십성상 장구한 나날 오직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 총대로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해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혁명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공지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명포수들로 자라난 포병들이 포사격훈련에서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을 올림으로써 뜻깊은 건군절을 빛나게 장식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무적의 총대로 받들어가는 백두산혁명장군이 있는 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백두의 나라 선군조선은 천만년 길이 길이 강성부흥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중요대상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청춘거리체육촌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문송이, 텔레비전국창작사 배우 안윤경은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힘있는 지원으로 대승을 고무하였다.

채취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리옥향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기여할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여러차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고성군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리영심은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투쟁으로 동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사동구역 송화초급중학교 소년단책임지도원 서은별도 여러차례 들끓는 전투장소를 찾아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돌격대원들이 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청춘거리체육촌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킴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성 부원 오철민은

말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군인가족의 본분을 자각하고 지난 기간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해온 락랑구역 통일거리3동 28인민반 고미옥은 청춘거리체육촌개건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줌으로써 병사들의 어머니로 존경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철도협조기구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철도협조기구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어온 선물을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정회의에 참가한 철도협조기구위원회대표단

단장인 쇼즈다 따메우쉬워원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2일과 2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며 건설 및 조업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합숙과 휴게실을 어로공들의 정든 보금자리답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택지구를 멋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어로공주택지구를 어촌단풍마을이라고 다정히 불러주시였다.

새로 무은 고기배에 오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배의 기술적특성을 알아보시고 《단풍》호 계열의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많이 건조되고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성능이 제고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이곳 수산사업소는 불수목 회한한 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새로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로라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동북보도망, 길림망, 로씨야의 이파르-파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중홍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비행

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이것께서는 김훈의 비행모습을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아버지가 누비던 하늘길을 아들이 날고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훈에게 아버지처럼 조국 수호의 향로를 부대의 맨 앞장에서 날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훈련을 마친 비행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항공공의 싸움은 분초를 다룬다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인 동북망, 동북보도망, 로씨야의 이파르-파쓰통신, 신문 《네치비체마야 가제파》, 인터넷신문 《브스클라드. 루》, 인터넷통신 로스탈드, 인터넷잡지 노바야 팔리찌가, 인터넷홈페이지 《아무르 부르크》, 캅보자신문 《라스마이 캅보자》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 인도네시아 버리다 짜푸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원 야영소를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다.

중국, 브라질의 인터넷홈페이지들, 라오스통신, 인도네시아 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동영상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문명한 생활환경과 애국

## 도시경영상 일꾼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러야 하는 사업도 잘하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봄철에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도시경영상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러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의 거리와 마을, 일터를 선진사회의 요구에 맞게 문화적으로 꾸러는 사업은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지만 특히 봄철이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국장 김광민: 봄은 한해의 사계절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 계절을 거울한 흔적을 남김없이 가지는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수 있는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보다 깨끗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특히 봄철에는 바람이 자주 불므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러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먼지가 일고 오물이 날리는 현상을 극복할수 없다.

봄철 생활환경개선선이 그만큼 중요하기때문에 봄철생활환경개선선이라는 당에서 불철생선문화, 생활문화화학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힘을 넣는데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다.

기자: 생활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러는 사업은 단순히 거리와 마을, 일터를 알뜰히 꾸러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문명국에서 살게 될 주인공다운 고상한 정신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국장: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러는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상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놓고서도 때 사람들의 애국심과 문화수준을 평가할수 있다.

기자: 봄철에 생활환경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러는데서 나서는 사업은 무엇인가. 국장: 도시문화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최근년간에 온 나라에 잔디밭이 많이 생겨나서 조성되었지만 아직 살림집지주안쪽 등에 땅이 드러났거나 흙먼지가 이는 곳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곳을 배설없이 찾아내어 지피식물을 심어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자: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들과 주민지구들에서 휴지가 날리거나 오물이 쌓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도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러는데서 중요하다고 본다.

부국장 김명수:현재 우리 도시경영상에서는 도로와 공원, 휴식지들에 휴지통들을 더 많이 설치하고 오물받이 오물들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대책을 세우는 사업, 오물을 공명적방음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해나가고있다.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어놓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이 사업에 모든 사회성원들이 주인답게 참가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최근에만도 수도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는 선진사회의 문화문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떠섰다. 누리는 행복이 크다고 할수만 하려는 사람, 받아안은 사람이 고맙다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될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원의 의자 하나, 휴식지의 유휴지 하나라도 자기 살붙이처럼 아끼고 애호관려하는 자각적인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거리와 마을, 공원과 휴식지의 보도블록포장에 잡초가 돋아나지 않게, 자그마한 휴지조각이나 날리지 않는가를 살뜰살피고 더러운 물에 속 베어내야 한다. 더러운 오물을 아무곳이나 그냥 버리는 비문화적인 행동은 문명국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방식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사소한것에서부터 표현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기자:현재 전국각지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그에 대해 알고싶다. 국장:제일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이 도시문화사업이다. 얼마전

도시경영상 일꾼들과 평양시의 원림부부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본원에서 지피식물을 심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가지고 강습이 진행되었다.

현재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에서 휴지 하나, 휴식지 하나라도 자기 살붙이처럼 아끼고 애호관려하는 자각적인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거리와 마을, 공원과 휴식지의 보도블록포장에 잡초가 돋아나지 않게, 자그마한 휴지조각이나 날리지 않는가를 살뜰살피고 더러운 물에 속 베어내야 한다. 더러운 오물을 아무곳이나 그냥 버리는 비문화적인 행동은 문명국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방식이 아니다.

기자: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노래의 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사회주의 대국에 최광한 불날과 더불어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무릉도원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기자: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라는 노래의 구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사회주의 대국에 최광한 불날과 더불어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무릉도원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기자:제일 큰 힘을 넣고있는 것이 도시문화사업이다. 얼마전

## 사회의제도가 좋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떼뜻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들에게는 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우고 탐구할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렸습니디.》

만경대구역 갈림길 1동 39인민반과 41인민반 주민들은 한 현관을 리용하며 이웃하여 산다. 이 두 인민반에 경사가 있다.

올해 아바트에서 한 두명도 아니고 10여명이나 하는 자녀들이 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공업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공업전문학교... 그들중에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당원이 되여 돌아온 청년들도 여러명되고 한동에서 함께 자라며 공부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도 있다.

자식들이 입학시험을 치러 갈 때까지만 해도 혹은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을 조였던 부모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 전문학교시험을 친 10여명이 입학합격을 얻고 현관문으로 들어갔다. 《어찌먼 우리 현관에 이

## 10여명의 대학, 전문학교입학생이 나왔다

한 북이 녀름처럼 두둑 떨어졌을거야. 《이제 어디 우연이겠소. 제도가 좋아서 차례된 북이지.》 인민반사람들 모두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주었다.

《김홍아, 기봉아, 대학취업을 단 너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를 꼭 꼭 대답하거라. 우리 아버지 로동자라고 말디.》

14층 3호집의 전생로병환머니도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관에 끼어들었다.

이번에 대학과 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거의 다 동구주택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건설부문의 로동자들이다.

나이가 여러움을 겪던 시기에 자란 세 세대들이건만 언제 한 번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비친적이 없었다.

나라에서 주는 공유유를 마시며 해빛같은 고실에서 돈 한판도 지출하지 않았던 이들의 내력을 펼치던 그때부터 그들의 앞에는 대학으로, 전문학교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었다.

이 땅에서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노래구절도 잊듯이 이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현실로 꽃피었다.

자본주의나라같은 이런 평범한 가정들의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한 배움의 꿈을 간직하였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실현될수 있었을것인가.

정말 근근이대중들의 자녀들을 한층에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는 사회주의 내 나라

## 푸른 소나무처럼 굳세게,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게

가슴에 새기었다. 또한 유화 《4월의 대동강》, 《오성산에 안개 개인디》, 《만경대의 봄》, 《빛나라 정일품》, 《5월의 백두산》, 《조국평화통일》 등을 보면서 참관객들은 절제수동무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불멸의 영웅의 고고와 헌신에 대하여 깊이 되새겨보았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따라 승리의 불, 탁월의 불을 안아 자랑찬 로정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조신화 《모친 바람 불어와도》, 《불멸의 꽃 길일성화》, 《조국의 전갈매》 등 깊은 뜻이 담겨있는 작품들이었다. 조원두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곳 로화가는 푸른 소나무처럼 푸름을 잃지 않고 굳세게 그리고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게 살겠다는 자기들의 지향을 담아 송화미술품이라는 명칭을 달고 영연히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는 길에서 창작의 불을 놓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변함없이 일해오고 있다.

활짝 핀 모세의 꽃 길일성화와 전갈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조국을 인민이 주인된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명령을 빛내이는 길에서 로화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활력으로 일해나가는 참관객들의 충정의 마음을 보았으며 푸른 참대를 형성하고 그 옆에 모진 바람 불어와도 한생 휘둘러쳐와도 오직 땅을 따르는 한길만을 곁잡이여, 변함없이 가려는 그들의 신념의 맹세를 읽을수 있었다.

전갈매장에는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고 현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어가는 조국의 각종적인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유화 《해리마동상이 보이는 곳에서》, 《동트는 태양이 빛나는 곳》, 《세로지 추산기》, 《대식령스키장》, 조신화 《대제도간지》 등의 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는 부시게 달라질 수도의 면도,

##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서사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한평생을 불멸의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태양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 조국을 밝게 비추고 계신다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명령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인민위대한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게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구하였다.

또한 옥성일동무는 《조국이여 말해다오》, 《나의 꿈》, 《우리의 시간》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만방에 더욱 빛내어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의지, 대를 이어 누리는 수평화, 태양복속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려는 온 나라 인민의 행복찬 모습 등을 담은 여러편의 가사들도 창작하여 보내여왔다.

조신인민군 군관 리원호동무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살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편의 글작품들을 보내여왔다. 가사 《주제사상탑문화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시려 수령님 지퍼주신 주제의 봉화

이렇듯 절제위인들에 대한 흥미의 메이러가는 우리 강산에 꽃없이 울려 퍼지는 조국

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다.

조항 씨

## 새로 알려진 발해시기의 금귀걸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사유적과 유물은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를 보여주는 실물자료입니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에는 천년강국 고구려

## 산골마을분교의 두 녀교원

벽동군 관상고급중학교 김골분교 교원들이 한옥, 김옥희동무들은 처녀시절부터 30여년동안 외진 산골민 립산 마을에서 후대교육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성실한 교육자이다.

서로 힘을 합쳐가며 분교를 아담하게 꾸려주고 학생들의 교수요양사업을 위해 온갖 정열을 기울여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언제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새 교수요양방법론을 탐구하며 자질향상에 우선적인 힘을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자도시의 출현은 인간의 생활에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전자도시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읽을수 있게 만든 도시이다.

전자도시가 가지고있는 중요한 우점의 하나는 전문내용과 목적에 대한 검색을 진행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다매체기술을 리용하여 만든 전자도시서는 문자와 함께 음성, 화상도 결합하여 특수요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자도시가 널리 리용되고있다. 전국각지에서 전자도시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리용하여 학습도 많이 하고 있는것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자도시를 많이 만들어 보급하면 도시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고 사회성원들이 부강조국건설에 힘쓰는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이바치울수 있다.

인민대학습당 국장 박사, 부교수 리철호



## 헤파린과 그 약리작용

1910년경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동물의 간에서 추출한 물질이 혈액응고억제기능을 가진다는것을 밝혀냈는데 그 물질이 바로 헤파린이다. 헤파린은 직접적인 혈액응고억제작용으로 혈전형성을 저지시키뿐만 아니라 그것이 커지는것을 예방한다. 그러나 헤파린은 출혈, 혈소판감소, 골소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로부터 헤파린에 대한 연구사업은 보다 심화되었다.

## 짜기때문에 최근에는 헤파린과 구조와 작용이 비슷한 헤파리노이드를 제조하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오고있다.

우리 만년제약공장에서도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리용하여 헤파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항혈전작용을 개발하였다. 이 약물은 항혈전작용이 강하고 부작용이 적기때문에 사람혈액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만년제약공장 지배인 박사, 부교수 송영순

## 볼록한 렌즈를 달아

후에술자인 리백 립동무가 아흔을 가까이하는 고령임에도 청춘의 열정으로 깊은

사회적탐구를 바쳐 창작한 조신화 《정든 고향집트락》 앞에서 오로도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소담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에 한가로운 미소가 머피어 피어던들과 병아리들, 그 옆에 피어나 날꽃과 메드라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꽃에 앉은 잠자리...

볼록거울, 세화거울을 비롯한 조신화의 고유한 기법들을 리용을 이끄시어 천리마족 선, 영웅 조신의 기상을 펼치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영도아래는

그런가 하면 박사 서기운동무가 창작한 유화 《동트는 태양이 빛나는 곳》, 《대제도간지》 등 조신화 《대제도간지》 등의 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는 부시게 달라질 수도의 면도,

참관객들은 전생로병환머니도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관에 끼어들었다.

이렇듯 절제위인들에 대한 흥미의 메이러가는 우리 강산에 꽃없이 울려 퍼지는 조국

## 더욱 중시되고있는 지피식물(1)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지구와 절길주변, 공원들에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함디.》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촉진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지피식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성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지피식물은 이미 도시문화와 원림식물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재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원림경관을 풍부하게 하며 목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특히 공원이 발전한 도시와 인구가 집중된 지구에서 녹화를 중시하고있으며 그중에서 도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있다. 길옆이나 강쪽, 오수주변과 공지 등이 고층건물의 지붕이나 담장은 물론 식물로 피복할수 있는 모든 곳을 가능한것 푸르게 하여 땅이 드러나지는 곳을 철저히 없애도록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고 면모를 깨끗하게 하고있다.

지피식물은 식물분류학적으로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땅을 덮고 자라는 이끼류, 땅오류류, 양치류를 피복하는데 리용되는 키가 1m이하이거나 그이상이지만 1m이하로 조절할수 있는 식물로서 관상가치와 함께 도시 및 환경보호능력이 강한 식물을 지피식물이라고 한다.

지피식물은 공기속의 염화소나 이산화황 등 각종 유해가스를 흡수한다. 특히 지피식물은 거대한 천연 《천지흡수기》로서 공기중의 먼지를 부단히 흡수, 퍼파한다. 연구에 의하면 바람속도가 3-4급(나무잎이 가는 가지가 끊김 없이 움직이거나 작은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일 때 지피식물은 심지 않은 경우의 공기중 먼지농도는 지피식물을 심은 땅에서보다 13배나 더 높다고 한다.

지피식물은 또한 비교적 강한 살균능력을 가지고있다. 즉장한 지피식물과 같은 면적에서 지피식물을 심지 않은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세균함량은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은 곳보다 3배나 높다고 한다.

